



Passive fit of implant supported prosthodontics

황성택*, 류재준, 서규원, 신상완 | 고려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고정성 및 가철성 보철물에서 치근을 대신하거나 보철물을 지지해주는 골유착성 임플란트는 임상적으로 장기적으로 신뢰할만한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골유착성 임플란트의 합병증에 대해 보고하는 문헌도 적지 않다. 임플란트 주변의 치조정골의 상실이나 골유착의 상실과 같은 생물학적 합병증, 지대주 나사의 풀립이나 파절과 같은 보철적 합병증, 임플란트의 파절이나 보철물의 파절과 같은 합병증도 적지 않은 빈도로 보고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임플란트와 보철물 사이의 적합(fit)을 강조했고, 상기 합병증의 여러 원인중 하나로 추정되는 것이 보철물의 부적합(misfit)이다.

임플란트 보철물의 부적합은 임플란트, 임플란트 주변골 및 상부보철물 등에 내부응력을 발생시키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load)을 균일하게 분포시키는데 장애를 주어 힘의 집중을 유발해, 위에서 언급되었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부적합을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임상 및 기공술식 등이 개발되었지만, 현재의 임상 및 기공술식으로 이상적 적합(ideal fit 또는 perfect fit)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본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1)적합과 부적합이란 무엇인가? 2)부적합이 합병증을 유발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메커니즘, 3)수용가능한 부적합(acceptable fit)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